

주식전략팀 | 2014년 3월 4주 | No.04

삼성 Weekly

Samsung Weekly Investment Guide



CONTENTS

FORECAST

박정우의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
단기 트레이딩 기회

Global Financial Market
Global Macro Monitor

삼성 Top 10
삼성 Top 10 유니버스
삼성 Top 10 Monitor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한일이화(신규)

글로벌 Best 11
글로벌 Best 11 Monitor
글로벌 ETF 5

INFORMATION

Global Market Up & Down
Global Valuation Monitor
Global Earnings Flow

국내 증시동향
The Money Show
국내 시장지표
증시 캘린더

Weekly Talk Talk!!!



Question

이번 주 시장 방향은?

단기 트레이딩 기회



Question

금주의 TOP-10 포트폴리오는?

CJ CGV, 코웨이, KCC, 매일유업,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NAVER, 한국전력, OCI, CJ제일제당



Question

금주 주목해야 할 글로벌 주식은?

JP모건체이스(JPM): 스트레스 테스트 합격, 자산건전성 개선



Question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은?

P/E: 한국 8.9배, 선진 14.8배, 신흥 10.0배
P/B: 한국 1.0배, 선진 1.9배, 신흥 1.3배
일본 대비 한국 상대 밸류에이션 할인 국면 완화



Question

글로벌 증시 자금동향은?

선진 +132\$, 신흥 -41억\$
신흥 21주 연속 순유출 지속

박정우의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

단기 트레이딩 기회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FOMC 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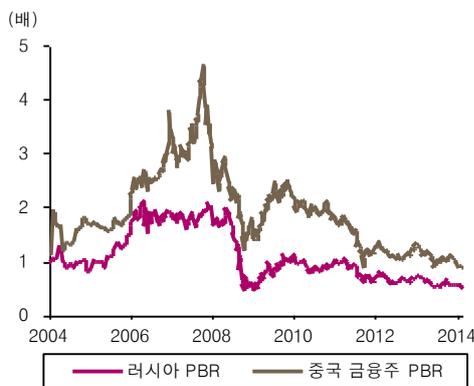
지난 주 코스피는 우크라이나와 중국 경기둔화 악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FOMC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3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규모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 100억불 축소로 결정되었으나, 기자회견 중에 언급한 옐런 의장의 첫 번째 금리인상 시기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원래 시장에서는 2015년 하반기에 첫 번째 금리인상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금리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옐런의 장은 양적완화 종료 이후 6개월이라고 답변하면서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 시점에 변화가 왔다.

2015년 상반기, 혹은 빠르면 3월에 첫 번째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며 미국의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위험자산 선호가 낮아졌다. 특히, 실업률 6.5%라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삭제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양적인 지표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포워드 가이던스에 기반한 단기금리 상승 억제 효과가 사라진 것도 미국 단기금리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 작년 5월말 버냉키 쇼크 이후 미국의 단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이머징 증시의 조정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바짝 긴장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 충격은 미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옐런 의장의 답변이 6개월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후"일 것이라는 시장의 "꿈보다 해몽"같은 해석에 힘입어 오래가지 못했다.

악재와 계절적 약세를 벗어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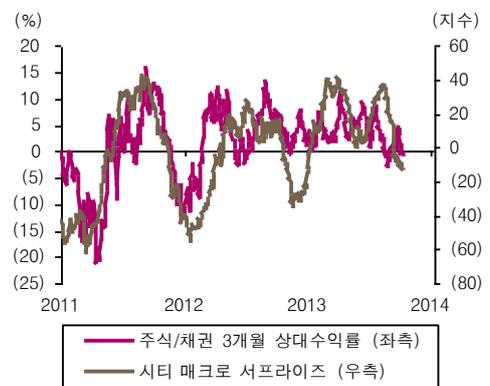
호재는 없고 악재만 만발했던 1분기를 거치며 시장의 체력도 소진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중국발 경기둔화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 금융주의 PBR은 역사적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눈높이가 낮아진 매크로 지표가 향후 시장 기대치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면 이번 주에도 시장의 반등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월말이 다가오면서 시장은 이제 계절성이 약화된 정상적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펀더멘탈의 회복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G10의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와 글로벌 주식 및 채권의 3개월 상대 수익률은 동행하는 성격이 강한데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가 바닥권에 있다는 것은 시장이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낮아져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중국 금융주와 러시아 12개월 선행 PBR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2. 시티 매크로 지수와 글로벌 주식/채권



자료: Thomson Reuters

1,900~2,000pt 박스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당사는 당분간 시장이 1,900~2,000pt의 박스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약제가 다시 부각되더라도 1,900pt 전후가 주가의 바닥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등이 이어져도 2,000pt를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즉, 당분간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장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1)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2014년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2.7%로 낮춰졌고, 중국 역시 7.5%에서 7.3%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1월과 2월 지표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 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어야 하지만 하향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경제지표의 약세가 계절적 영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디레버리징 국면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충격에 따른 물가 하락이 실질금리 상승을 낳고 이에 따라 유동성 환경의 개선속도가 느리다.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시대에 유동성 위축이 왜 말인가라는 반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동성의 양적인 측면인 통화량 증가율은 2013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통화량은 2012년 5.0% 증가에서 2013년 들어 절반 수준인 2.5%로 줄어들었다. 실질금리 역시 주요국의 물가가 하락하면서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어빙 피셔가 이야기한 디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은 실질금리 상승을 통해 실물경제에 전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3)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실적도 하향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또한, KOSPI 200 기준으로 올해 순이익 102조원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25% 이상의 증가율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점에서 주요 대형주의 추가 실적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부정적 영향력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박스권을 탈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단기 트레이딩 기회마저 외면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도 지적했듯이 코스피 하락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 지정학적 요인과 경기요인 그리고 통화정책까지 모든 약제를 경험한 코스피이기 때문에 당분간 웬만한 약제에는 끄덕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혼란스러운 매수 타이밍에서 침착하게 매수하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냉정함이 지금 투자의 최고 덕목이 아닐까 한다. 특히, 이번 주는 주요 매크로 지표가 눈높이가 낮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치보다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 초반에 주가하락을 매수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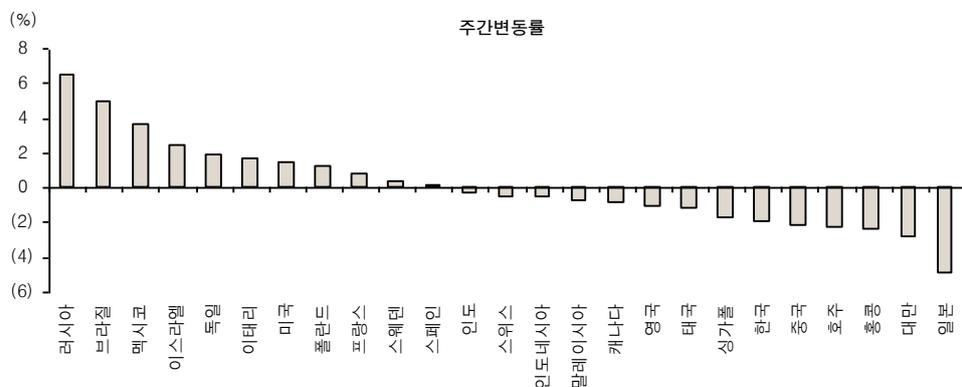
Global Financial Market

Key Point: 변동성 플레이를 즐기는 글로벌 시장

- 지난 주는 러시아의 약진이 돋보였다. 러시아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6.5% 상승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 브라질(+4.9%)과 멕시코(+3.6%) 역시 미국(+1.4%) 증시 반등에 따라 수익률 하위권을 탈출하며 주간 기준으로 러시아에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는 독일(+1.8%)과 이태리(+1.6%), 그리고 인접한 국가인 폴란드(+1.1%)의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주간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0.12%)는 글로벌 채권(-0.07%)보다 앞서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 주 후반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가 뜻밖의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서 위험자산에 대해 조심조심하는 분위기로 인해 막상 포지션을 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FOMC 쇼크의 영향력을 제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선진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교차매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5.0%)에 대한 열기는 예전만 못하다. 아베노믹스 자체의 한계도 있겠지만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머징 대장격인 중국(-2.2%)은 최근 들어 성장률 하향조정이 이어지면서 힘을 못쓰고 있고, 그에 따라 중국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2.0%), 호주(-2.4%), 홍콩(-2.5%), 대만(-2.9%) 등은 주간 기준으로 여전히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벤트 트리븐 전략에 따라 치고 빠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률 내기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주간 변화율 순위

그림 1. 글로벌 주식시장 주간 변화율



자료: Thomson Reuters

박 정 우

02-2020-7029
jw107.park@samsung.com

Global Macro Monitor

Key Point: 경제지표의 진검승부가 시작

- 이번 주는 미국 주택시장의 하이라이트인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와 더불어 신규주택 판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 주 전미건설협회(NAHB) 주택 심리지수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주택착공건수도 90만호 전후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상승속도와 신규주택 판매 역시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 1분기 주택경기가 감속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은 미국 경기를 이끄는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 물론, 내구재 주문이 계절적 약세를 딛고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설비투자회복이라는 매크로 논리는 이번 주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월말에는 각국의 공식적인 경제전망 서베이에 앞서 민간 전문 서베이 기관인 Markit의 PMI지수가 발표된다. 미국과 중국 및 유럽을 상대로 월말에 발표되는 Markit의 서베이 지수는 공식 서베이가 발표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4월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최근 미국 지역연방의 서베이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계절적 약세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타나는 Markit의 미국 PMI 지표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다소 정체 내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통화량 지표의 반등이 이어지면 유럽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중국이다. 지난 주 리커창 총리가 중국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4일에 발표되는 HSBC 중국 PMI는 전월과 대동소이하게 50이하에 머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 PMI가 여전히 50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물론, 우려가 높으면 정책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다. 최근 중국의 금리인하를 포함 기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측면에서 정책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 더군다나 4월부터 중국경기는 계절적으로 강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정책과 맞물리면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는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및 이벤트 일정

표 1. 이번 주 주요 일정

일정	국가/지표	주요 내용
3월 24일	중국/3월 HSBC PMI	시장은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48.7 예상
	유럽/3월 Markit PMI	2월보다 약세로 전망
3월 25일	미국/1월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1월 주택가격은 전월보다 소폭 약세 전망
3월 26일	미국/3월 Markit PMI	2월보다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3월 27일	유럽/ 2월 M3 통화량	전월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자료: 삼성증권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삼성 TOP 10 연간 수익률 (2014. 1. 2 ~ 3. 21)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1.25%	KOSPI -3.80%	초과 수익률 +5.05%p
--	-----------------------	-----------------	-------------------

종목	주가(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목표비중)	수익률
CJ CGV (079160)	55,700	- 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평균관료 상승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 - 중국 및 베트남 신규 출점수 확대에 해외부문 성장 본격화	3/11 (10%)	(-0.3%)
코웨이* (021240)	76,000	- 국내 렌탈 사업 호조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지속 - 중국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공기청정기 수출 고성장 전망	2/27 (10%)	(+9.4%)
KCC* (035250)	546,000	- 향후 리모델링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전망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시 동사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까지 부각	2/18 (10%)	(+7.7%)
매일유업 (005990)	45,850	- 유제품 가격 인상과 중국향 분유 매출 급증으로 이익 성장세 부각 - 주요 자회사 제로투세븐의 온라인·중국향 매출 확대 전망	1/21 (10%)	(+4.0%)
현대모비스 (012330)	301,500	- 현대차그룹 신차 사이클 도래 및 Capa 확대의 최대 수혜주 - 자동차산업 상승사이클 진입으로 완성차대비 주가 프리미엄 확대 예상	1/2 (10%)	(+5.0%)
SK하이닉스 (000660)	38,700	- 메모리 시장 과점화·제한적인 추가증설 등으로 업황 사이클 상승 전망 - 플래이스테이션4 판매호조로 소니향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 부각	1/2 (10%)	(+6.2%)
NAVER (035420)	804,000	- 게임·광고사업 등으로 5년내 전체 매출 50%이상이 라인에서 발생 - 페이스북이 SNS 기업 왓츠앱을 인수한 이후 라인 가치 재평가 기대	1/2 (10%)	(+9.7%)
한국전력 (015760)	37,500	- 13년 9.4% 전기료 인상과 원화 강세 진행으로 2014년 실적 개선 전망 - 총당금 감소 및 적자 프로젝트 종료로 2014년 큰 폭의 이익성장 예상	1/2 (10%)	(+8.7%)
OCI (010060)	181,000	- 전세계 태양광 발전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며 공급과잉 해소 전망 - 폴리실리콘 가격 BEP 수준까지 상승하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점증	1/2 (10%)	(-5.2%)
CJ제일제당 (097950)	265,000	- 가공 식품 부문 구조조정 및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지속 - 현재 라인신 가격은 경쟁업체의 원가이하로 하락하여 하방경직성 확보	1/2 (10%)	(-4.8%)

참고: * 비커버리지 종목

TOP10 수익률은 페이퍼상 운용이 아닌 실제 매매에 따른 성과 차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편입 및 편입제외 종목의 경우 편입일 당일 평균주가를 수익률 산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OCI

CJ 제일제당 코멘트

동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쇠고기다시다 등 총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8.3% 인상한다고 20일 발표. 인상하는 품목은 조미료 3개, 절임류 8개, 액젓 5개, 당면 1개 등 총 17개임. 다시다 등 조미료 가격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2년 만이며, 전체 조미료 21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이번에 인상됨. 이는 가공식품 부문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동사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유니버스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P/E (배)	P/B (배)	수익률 (%) 1개월
		2013(P)	2014(E)	전년대비 (%)			
1 현대모비스	29,350	2,924	3,214	9.9	7.5	1.2	(3.5)
2 SK하이닉스	27,485	3,380	4,277	26.6	7.5	1.5	(1.5)
3 NAVER	26,502	524	774	47.7	41.9	8.6	14.0
4 한국전력	24,074	1,519	5,571	266.8	9.3	0.5	0.8
5 코웨이*	5,861	338	381	12.6	20.9	4.6	10.5
6 KCC*	5,744	232	292	26.0	18.5	1.0	4.4
7 OCI	4,317	(106)	180	흑전	36.1	1.5	(9.1)
8 CJ제일제당	3,627	345	484	40.1	16.5	1.1	(1.3)
9 CJ CGV	1,179	51	89	72.2	18.0	2.8	8.8
10 매일유업	614	35	48	37.4	16.2	1.6	1.9
11 삼성전자	210,117	36,785	36,927	0.4	7.1	1.1	(4.3)
12 현대차	60,449	8,315	8,874	6.7	7.0	1.0	2.9
13 하나금융지주	11,233	1,165	1,650	41.6	8.7	0.5	(4.0)
14 SK	8,950	3,621	5,192	43.4	7.4	0.6	8.6
15 한국타이어	7,371	1,031	1,093	6.0	8.7	1.5	(3.4)
16 삼성SDI	7,037	(27)	106	흑전	22.3	0.9	(3.5)
17 고려아연	6,255	600	676	12.8	11.2	1.3	(5.0)
18 한라비스테온공조	4,580	364	423	16.3	12.5	2.4	9.0
19 두산중공업	3,524	958	832	(13.1)	14.8	0.7	(8.3)
20 에스원	3,317	129	198	53.6	23.8	3.0	13.1
21 GKL	3,009	191	184	(3.8)	20.4	6.1	23.6
22 서울반도체	2,851	96	127	32.0	29.6	3.9	3.2
23 효성	2,581	486	622	28.0	7.5	0.8	5.2
24 현대로템	2,537	174	227	30.3	16.2	1.5	5.5
25 만도	2,493	313	377	20.5	9.1	1.2	6.5
26 현대산업	2,182	(148)	192	흑전	20.2	1.0	(4.6)
27 금호타이어	1,995	346	418	21.0	9.4	1.6	(4.3)
28 메리츠화재	1,505	136	188	38.3	8.4	1.3	2.1
29 대상*	1,482	156	165	5.7	13.9	1.9	9.9
30 종근당*	736	N/A	72	N/A	N/A	N/A	6.1

참고: 2013년 실적 미발표 기업은 컨센서스 반영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보험사 컨센서스는 순이익 기준, 밸류에이션 지표는 12개월 선행 기준

계열사 - 삼성전자, 삼성SDI

종근당은 2013년 11월부터 종근당홀딩스로부터 분할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OCI,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음영 처리된 10개 종목은 현재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나머지 20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10개 종목 외에 투자 유망 종목으로 관리하는 유니버스입니다

삼성 Top 10 Monitor

Top 10 Weekly News Comment

- **NAVER (3/17):**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전 세계 가입자가 3억7000만명을 돌파했다. 네이버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며 기업가치를 30조원까지 끌어올렸다. 라인은 일본을 거점으로 동남아와 중남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모델도 스티커(이모티콘), 게임에서 연관 앱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Beyond Line'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차세대 라인을 이끌 3가지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 **현대모비스 (3/17):** 현대모비스는 새시 모듈을 시작으로 2000년 운전석 모듈, 2003년 프론트엔드 모듈을 생산해 자동차의 3대 모듈을 모두 생산하는 세계적인 모듈 업체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모듈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누적 생산량 1억 세트를 돌파했다. 세계적 자동차 전문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는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현대모비스를 글로벌 톱10 자동차 부품업체로 선정했다.
- **CJ CGV (3/18):** 중국 CGV의 연간 영업손실을 50~60억원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국 내 수입영화를 30편에서 40편으로 증가해 콘텐츠 다양화 할 계획. 이로 인해 프리미엄 티켓비중 확대와 영화 수요층이 2~3선 도시로 확대할 전망으로 1분기는 춘절, 발렌타인데이 등 이벤트 효과로 중국 박스오피스 내에서 약 30% 차지 예상.

Top 10 Analyst Comment

종목명	증권사	투자포인트
SK하이닉스	신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바와 샌디스크 피소건은 펀더멘털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 변수임 - 낸드부분은 모멘텀이 부진하지만 PC디램 부문이 견조하여 실적은 양호할 전망 -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한국전력	H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LNG가격 상승과 SMP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으로 2분기 이후 회복 예상 - 원전가동률 상승으로 발전 원가는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 -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48,000원 유지
코웨이	한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 급성장에 따른 수출 부문 확대 예상 -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가전 렌탈부분 회복에 따른 매출액 성장 전망 -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82,000원 제시
KCC	우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 확정으로 건자재 사업부문 장기 성장 가능 - 조선업황 회복으로 조선용 도료 부문 이익 정상화 가능성 부각 -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50,000원 제시
NAVER	KDB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가치평가시 라인의 가치가 가장 저평가 되어 있음 - 라인은 2014년 모바일광고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수익모델을 강화할 예정 -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50,000원 유지

자료: Fnguide

홍승표

02-2020-7338

seungpyo.hong@samsung.com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종목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NEW 한일이화* (0078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 그룹의 볼륨모델 신차 모멘텀 및 해외 공장 증설 효과에 따른 수혜 기대 - 해외 법인 실적 회복과 지배 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감 유효 - 2014년 예상 순이익 1,564억, PER 6.4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3/24	(신규)
조이맥스* (1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윈드러너2, 아이언슬램 등 모바일게임 신작 출시 모멘텀 부각 전망 - 하반기 온라인게임 '로스트사가'가 중국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예정 - 2014년 총 10여개의 모바일 게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가시화 	3/21	+2.2%
서원인택* (093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액세서리 사업 확대로 동사의 Book Cover 매출 성장 기대 - 갤럭시S5에 방수·방진 기능이 기본 채택되며 방수관련 부자재 사업 확대 기대감 -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50% 증가한 490억원, PER6.7배 수준 밸류에이션 메리트 	3/19	+1.4%
테스나* (13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카드용 웨이퍼 테스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 업체로 이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 할 예정 -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영역 확장으로 MCU칩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부각 -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60 억원 으로 PER(주가수익비율)7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3/17	-0.4%
파세코* (037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보급율이 100%를 돌파하고 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빌트인 가전 사업의 성장성 부각 - 미국·러시아 등 해외에서 주력제품인 석유난로의 판매가 전년 대비 55% 증가 -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8배 수준으로 국내 상장 전자재 종목 중 가장 저평가 	2/21	+13.5%
KT뮤직* (043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3대 기획사인 에스엠, YG엔터, JYP가 출자한 KMP홀딩스 인수로 음원 콘텐츠 경쟁력 보유 - KT의 지니 음원서비스 인수로 유료회원수 증가와 KT 통신 플랫폼과의 시너지 효과 - 음원가격은 문화체육부의 음원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매년 10% 상승 예정 	2/18	+8.9%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모멘텀 플레이 교체 코멘트

사파이어테크놀로지(123260)는 20일선 붕괴로 인한 단기적인 탄력 둔화로 편입 제외합니다. 스마트폰향 수요 확대와 LED 조명시장 성장으로 중장기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나, 단기 상승 이후 차익매출 총회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20일선이 붕괴되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편입 제외합니다.

Global Best 11

글로벌 Best 11

글로벌 Best 11 누적 수익률 (2013. 1. 2. ~ 2014. 3. 20.)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3.22%	MSCI World & China -3.64%	초과 수익률 -0.42%pt
--	-----------------------	------------------------------	--------------------

종목 (티커)	시장	주가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마스터카드 (MA)	미국	USD 78.41	- 모바일결제 시장과 이머징마켓 결제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기대 - 꾸준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적 정책 실행	2/28 (+0.8%)
엑손 모빌 (XOM)	미국	USD 94.58	- 경쟁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및 ROE에도 밸류에이션 저평가 - 말레이시아 2억 큐빅피트 규모의 신규 천연가스 유전에서 생산 시작	1/27 (-0.3%)
구글 (GOOG)	미국	USD 1,197.16	- 적자 사업부인 모토롤라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로봇업체 인수합병 및 팍스콘과의 제휴를 통한 로봇사업 본격 진출	1/2 (+6.8%)
퀄컴 (QCOM)	미국	USD 78.10	- 범용성을 앞세운 플랫폼 올조인을 통해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 - 분기 배당금 인상 및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 지속	1/2 (+5.2%)
존슨앤존슨 (JNJ)	미국	USD 94.12	- 연이은 신약 출시로 제약 사업부문 매출 호조세 지속 - 미국 FDA로부터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 승인되며 기대감 상승	1/2 (+2.8%)
JP모건체이스 (JPM)	미국	USD 60.11	- 자산 기준 미국 1위 은행으로, 가장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 감원 및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1/2 (+2.8%)
중국왕왕식품 (151)	홍콩	HKD 11.22	- 중국 1가구1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서 유제품 시장 내 가파른 성장 예상 - 중국 정부의 내수주 및 서비스 산업 성장 추진의 수혜 기대	2/20 (-1.8%)
히타치 (6501)	일본	JPY 728	- 전력과 인프라, ICT 등에서 두각 나타내며 빅데이터 활용 능력 우위 - 사업부문별 분사 이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대	1/2 (-8.5%)
폭스바겐 (VOW)	독일	EUR 180.85	- 전체 매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매출 증가 지속 - 리터당 111km를 주행하는 XL1 개발로 연비관련 기술 우수성 입증	1/2 (-11.4%)
안호이저부시 (ABI)	벨기에	EUR 72.87	- 세계 맥주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버드와이저> 생산업체 - 2013년 4분기 실적이 전망치 상회 및 브라질 월드컵 특수 전망	1/2 (-5.7%)
LVMH그룹 (MC)	프랑스	EUR 129.30	-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명품수요 증가 기대 - 적극적 M&A로 루이비통 매출 의존도 줄이며 수익 안정화 전망	1/2 (-2.5%)

참고: 편입비중은 균등하게 배분. 시차 관계상 주가는 전일종가로 작성

Global Best 11 Monitor

JP모건체이스(JPM), 미 연방준비제도(FED) 자산건전성 심사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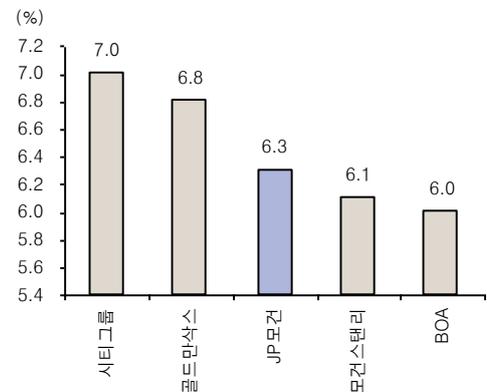
미국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FED에서 실시한 자산건전성 심사에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해 다수의 은행이 합격. 주택가격 급락과 실업률 급등 상황 속에서 2015년까지 미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에도 JP모건체이스는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최근 1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 은행별 스트레스 지수



자료: Federal Reserve

퀄컴 (QCOM), 글로벌 IB 호평속에 신고가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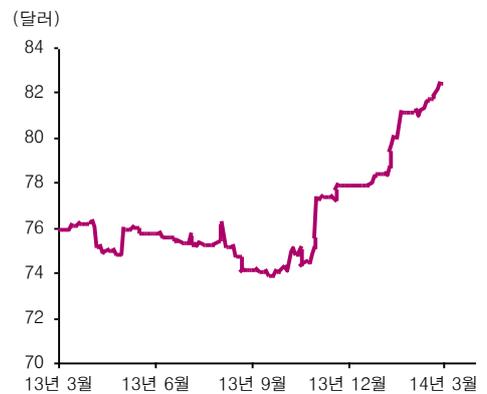
골드만 삭스를 비롯해 노무라, 웰스파고증권 등에서 투자 의견 및 목표가를 상향조정하며 신고가 경신. 글로벌 모바일 기기 판매 증가로 인해 로열티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최근 1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 블룸버그 목표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Global ETF 5

글로벌 ETF 5

펀드명 (티커)	주가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PowerShares QQQ NASDAQ 100 (QQQ)	USD 90.29	-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시스코 시스템즈 등으로 IT 중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대다수 글로벌 IB는 2014년 미국시장에서 매수 유망한 섹터로 IT 섹터 추천	1/3	(+4.2%)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XLI)	USD 51.87	- 미국 내 산업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GE,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3M, 유니온 퍼시픽 등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가 2014년에도 강세를 지속할 전망	1/3	(+0.4%)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XLY)	USD 66.31	- 미국 내 경기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컴캐스트, 아마존닷컴, 월트디즈니, 홈데포, 맥도날드, 포드 등 - 미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로 자동차 등 경기소비재 수요 증가세 지속될 전망	1/3	(0.0%)
iShares Europe (IEV)	USD 47.14	- 유럽 대표종목 지수인 S&P Europe 350지수를 추종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네슬레, HSBC홀딩스, 노바티스, 로슈, 보타폰 등 -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및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대표적 유럽 투자 ETF인 IEV 강세 지속 전망	1/3	(+1.6%)
iShares MSCI Europe Financials (EUFN)	USD 25.05	- 유럽 금융섹터 투자 ETF로 비교적 최근 설정(2010년 2월) - 주요 보유종목은 HSBC홀딩스, 방코 산탄데르, 알리안츠, BNP파리바 등 - 유로존 경기 회복과 함께 유럽 금융주가 강세를 주도할 전망 - 그리스, 스페인 등의 부실 금융기관 주가는 이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 우세	1/3	(+2.6%)

참고: 티커 QQQ, XLI, XLY는 미국 기업 대상의 ETF

티커 IEV, EUFN은 유럽 기업 대상의 ETF로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금주의 ETF - EWZ: iShares MSCI Brazil Index ETF

- 경제지표 둔화 지속되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
- 올해 2월 금리 인상폭 축소하며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황
-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김기배
02-2020-7090
kibaehahu.kim@sam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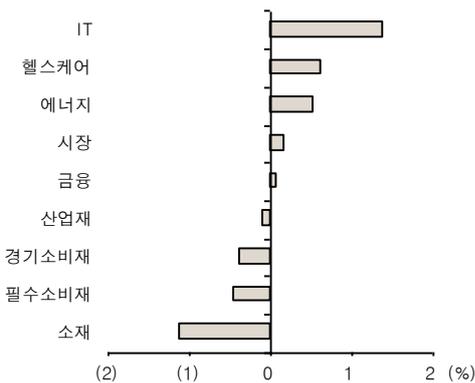
Global Market Up & Down

Key Point: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한 주

- 미국 실물경제가 이상한과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글로벌 증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 반면 일본 증시는 아베노믹스 기대감 악화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감.
- 엘런 의장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상 조기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귀금속 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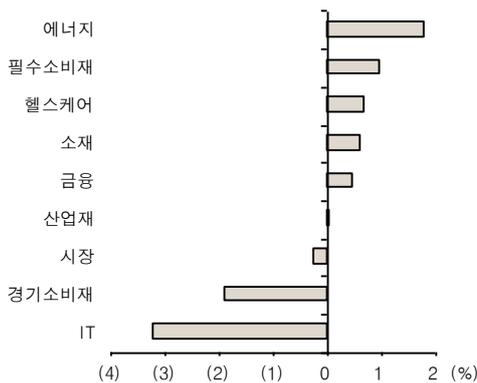
글로벌 마켓: 선진국 VS 신흥국

그림 1. MSCI 선진국 주간 업종별 등락률



참고: 달러화 기준, 3월 13일~3월 20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2. MSCI 신흥국 주간 업종별 등락률



참고: 달러화 기준, 3월 13일~3월 20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주요 지역 및 상품가격 등락률

표 1. 주요 지역별 증시 등락률

(%)	1주	1개월	연초 이후
미국	1.37	2.19	1.35
선진시장	0.16	0.89	-0.41
글로벌	0.12	0.21	-1.02
선진유럽	-0.08	1.50	-0.56
신흥시장	-0.26	-5.45	-6.18
한국	-2.03	-7.60	-8.12
아시아(일본제외)	-2.08	-3.25	-4.09
중국	-2.24	-10.77	-11.30
일본	-5.04	-7.86	-10.09

참고: 달러화 기준, 3월 20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표 2. 주요 상품가격 동향

(%)	1주	1개월	연초 이후
BDI지수	10.4	39.3	-28.8
콩	3.0	5.7	9.7
WTI	2.0	-2.8	1.7
구리	0.2	-10.1	-12.6
LME지수	-0.2	-6.2	-8.3
천연가스	-0.7	-26.6	0.5
Brent	-0.8	-3.7	-4.6
CRB지수	-1.0	-0.6	6.9
옥수수	-1.2	3.6	12.7
아연	-1.5	-4.7	-5.0
설탕	-2.5	6.1	6.6
금	-3.0	1.2	10.2
은	-5.0	-6.6	3.4
커피	-9.8	11.2	64.4

참고: 3월 20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Global Valuation Monitor

중국 소비 관련 업종 > 고정자산 투자 관련 업종

| 중국 정부는 성장의 축을 고정자산 투자에서 내수소비로 이동시키려고 함. 이에 고정자산 투자 관련 대표 업종인 소재·산업재 밸류에이션 할인 국면은 심화. 반면 중국 소비 확대에 수혜가 예상되는 IT·필수 및 경기 소비재 밸류에이션은 상향될 것으로 기대.

선진국 VS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한국			
	P/E		P/B		P/E		P/B		P/E		P/B	
	현재	평균	현재	평균	현재	평균	현재	평균	현재	평균	현재	평균
시장	14.8	12.7	1.9	1.6	10.0	10.7	1.3	1.5	8.9	9.4	1.0	1.2
에너지	13.0	11.2	1.6	1.5	6.1	7.7	0.6	1.0	8.9	8.3	0.8	1.1
소재	14.5	12.9	1.8	1.6	11.0	10.7	1.1	1.4	10.6	9.5	0.8	1.1
철강	12.6	12.0	1.3	1.5	8.9	9.7	0.9	1.4	10.1	9.1	0.6	0.9
화학	15.9	14.1	2.4	2.0	13.6	12.5	1.4	1.8	11.2	9.9	1.1	1.5
산업재	15.4	13.6	2.3	1.9	13.8	12.4	1.3	1.5	13.2	10.2	1.0	1.2
자본재	14.9	13.0	2.2	1.8	13.0	11.5	1.2	1.4	12.7	9.8	0.9	1.2
기계	16.2	15.4	2.5	2.1	14.6	9.6	1.3	1.5	16.2	8.8	1.0	1.2
건설	16.4	13.1	1.9	1.5	10.9	11.1	1.2	1.5	11.8	10.8	0.9	1.3
운송	16.2	15.3	2.3	1.8	15.9	17.2	1.6	1.6	23.9	31.9	2.1	1.5
경기소비재	16.0	15.2	2.6	1.9	11.6	11.3	1.8	1.9	7.3	8.5	1.1	1.3
자동차	10.3	14.7	1.4	1.2	7.9	9.4	1.3	1.7	6.6	8.0	1.1	1.4
유통	21.2	16.8	4.7	3.0	13.9	15.3	2.0	2.4	9.9	10.2	0.7	0.9
미디어	18.2	13.8	3.1	2.1	31.5	18.5	5.3	3.2	20.0	19.7	3.1	3.1
IT	15.6	13.8	3.0	2.5	11.8	12.9	1.9	2.0	7.9	11.0	1.3	1.5
하드웨어	13.0	12.8	2.3	2.0	12.7	13.5	1.3	1.5	14.9	27.1	0.9	1.2
소프트웨어	17.9	14.4	4.0	3.3	25.1	18.5	6.6	5.2	27.8	16.9	5.3	4.4
반도체	16.1	20.3	2.6	2.3	9.0	12.1	1.6	1.8	6.8	10.4	1.2	1.5
헬스케어	17.3	12.5	3.4	2.4	19.5	17.5	3.0	2.8	14.0	16.8	2.3	2.3
필수소비재	17.0	14.8	3.2	2.8	19.8	18.3	2.9	3.1	16.9	14.1	1.8	1.9
통신서비스	14.3	12.2	1.8	1.6	12.1	11.6	1.9	2.1	9.7	8.6	0.9	1.0
유틸리티	14.9	13.5	1.4	1.3	11.0	11.5	1.0	1.0	8.8	25.0	0.5	0.4
금융	12.7	11.3	1.2	1.0	8.1	10.1	1.1	1.4	9.8	8.8	0.7	0.8
은행	11.5	10.9	1.1	1.0	7.3	9.4	1.1	1.4	8.8	7.8	0.6	0.7
증권	12.8	11.0	1.2	1.1	13.8	12.9	0.9	1.1	13.7	11.8	0.7	1.0
보험	11.2	9.8	1.2	1.0	12.4	15.1	1.6	2.0	12.2	11.7	1.0	1.3

참고: 12개월 선행 기준, 2009년 이후 평균치

자료: I/B/E/S, Thomson Reuters

Key Chart

그림 1. 아베노믹스 기대감 악화되며 일본 대비 한국 상대 밸류에이션 상승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2. 임대소득 관련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회복세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한국 건설 업종 할인 국면 심화



참고: 12개월 선행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3. 연초 이후 크림반도 지정학적 긴장감 확대로 러시아 에너지 업종 밸류에이션은 5년래 최저치 기록



참고: 12개월 선행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Global Earnings Flow

Key Point: 한국 이익 추정치 하향조정, 이번에는 충분할까?

- 연초 이후 중국 철강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철광석 가격은 약세. 이에 철강업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철강금속 업종 EPS도 부진한 모습.
- 2012년 4분기에 이어 2013년 4분기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하회. 이에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중 MSCI 한국 지수내 기업들 중 이익 순상향 비율은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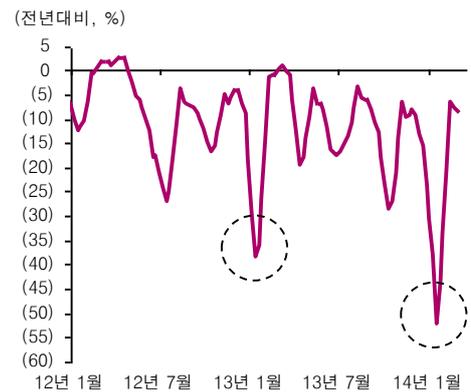
Key Chart

그림 1. 철광석 가격과 중국 철강금속 업종 EPS



참고: EPS는 12개월 선행 기준
자료: I/B/E/S, Thomson Reuters,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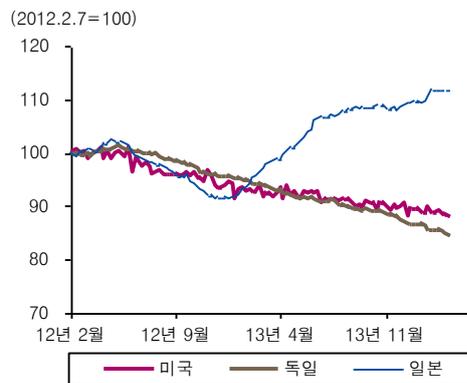
그림 2. 한국 이익 순상향 비율



참고: 12개월 선행 기준
자료: I/B/E/S,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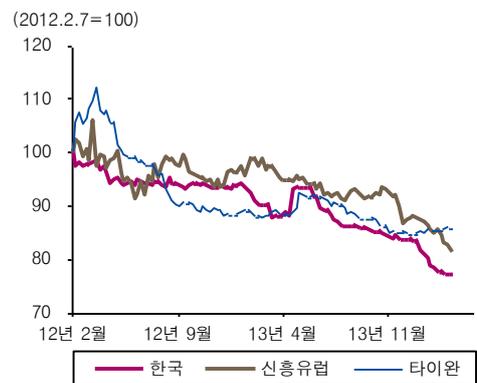
선진 · 신흥증시 실적 모멘텀 비교

그림 3. MSCI 선진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4. MSCI 신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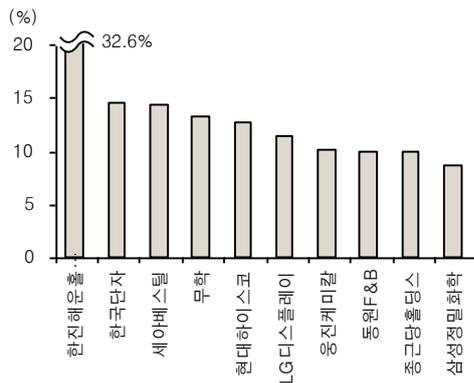
백 찬 규

02-2020-7014

ck.paik@sam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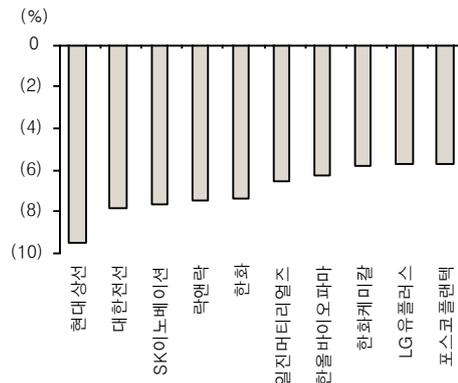
국내 증시동향

그림 1. KOSPI200 주간 상승률 상위 10 종목



참고: 2014년 3월 17일 ~ 3월 21일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2. KOSPI200 주간 하락률 상위 10 종목



참고: 2014년 3월 17일 ~ 3월 21일
자료: 한국거래소

표 1. 주간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SK하이닉스	766	1	삼성전자	2,045
이마트	284	2	NAVER	1,086
신한지주	184	3	엔씨소프트	561
한국전력	178	4	LG디스플레이	448
현대상선	175	5	POSCO	404
LG이노텍	153	6	현대중공업	343
게임빌	151	7	현대건설	297
하나금융지주	150	8	기아차	285
에스엠	137	9	현대차	259
현대모비스	119	10	LG	246

참고: 2014년 3월 17일 ~ 3월 21일
자료: 한국거래소

표 2. 주간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LG디스플레이	1,602	1	현대상선	601
기아차	1,251	2	삼성중공업	468
POSCO	660	3	KB금융	462
LG전자	627	4	SK이노베이션	387
엔씨소프트	567	5	이마트	295
삼성전자	504	6	SK하이닉스	295
NAVER	474	7	LG유플러스	264
LG	383	8	신한지주	249
대한항공	313	9	SK	241
SK텔레콤	290	10	CJ제일제당	241

참고: 2014년 3월 17일 ~ 3월 21일
자료: 한국거래소

The Money Show

글로벌 자금 흐름: 글로벌 주식형 펀드 92억 달러 순유입

지난주 신흥지역으로 -41억 달러 유출되며 21주 연속 순유출, 선진지역은 +132억 달러 유입되며 6주 연속 순유입 지속. 신흥지역으로의 유출폭이, 선진지역은 유입폭이 확대되며 지역간 차별화는 여전.

신흥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 지속

중국 경기에 대한 금융시장 우려가 지속되면서 중국 지역펀드에서 유출액이 확대. 전주에도 중국지역펀드에서만 약 15억 달러가 유출되며 자금 유출세가 가속화. 이에 신흥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전주 3월 美 FOMC 결과가 금주 반영되며 신흥시장 자금을 상당부분 부정적일 전망 (전주 데이터는 FOMC 직전 기간까지의 데이터를 반영). 한국 지역펀드로의 외국인 자금의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 등락에 따른 지수형 ETF에 대한 단기성 자금의 유출입만 지속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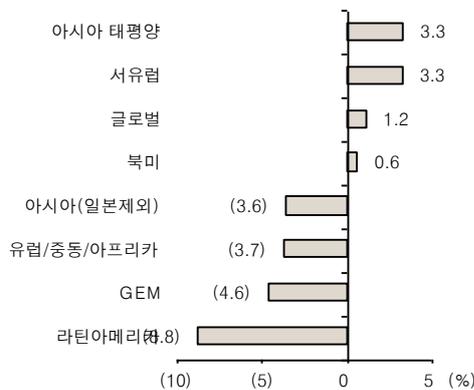
표 1.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백만달러)	순유입액			자산규모		
	주간	2주 전	연초 이후	2013년 말	현재	증감률 (%)
GEM(Global Emerging Fund)	-1,747	-680	-20,488	445,383	404,009	-9.3
아시아(일본제외)	-1,956	-1,406	-10,990	307,730	285,983	-7.1
라틴아메리카	-253	-465	-3,443	39,372	32,653	-17.1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96	89	-1,627	43,686	38,747	-11.3
신흥시장 합계	-4,052	-2,461	-36,549	836,170	761,392	-8.9
글로벌	828	2,410	13,877	1,216,366	1,254,769	3.2
아시아 태평양	147	-1,714	8,373	256,934	249,687	-2.8
서유럽	1,015	132	27,711	857,511	932,373	8.7
북미	11,237	4,799	20,742	3,281,757	3,387,549	3.2
선진시장 합계	13,227	5,627	70,702	5,612,567	5,824,378	3.8

참고: 2014년 3월 19일 기준

자료: EP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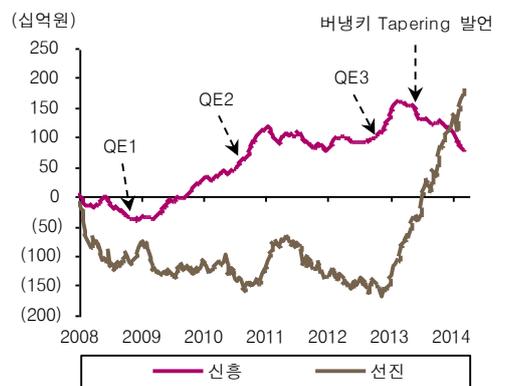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 연초 이후 자본 유출입 규모



참고: 각 펀드 자산규모 대비 순유입액 비중

자료: EPFR

그림 2. 선진 vs 신흥 주식형 자금 유입 흐름



참고: 2008년 이후 누적

자료: EPFR

주요 아시아 국가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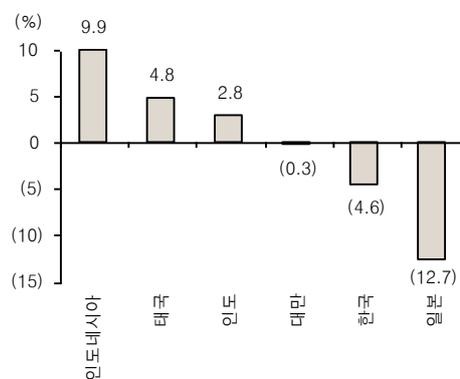
전주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이벤트가 신흥시장 증시에도 영향. 이에 전주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자금 유출이 지속. 일본증시의 경우, 연초 이후 외국인 자금의 이탈 지속으로 증시 부진 심화.

표 2. 주요 아시아 국가 외국인 순매수 동향

(백만달러)	주간	4주 누적	연초 이후	2013년 이후
한국	-1,039	-749	-3,370	1,490
대만	-19	1,954	783	9,212
일본	-10,924	-6,367	-19,754	137,981
인도	618	1,761	1,904	20,096
태국	-64	102	-726	-7,243
인도네시아	970	1,274	1,997	-141

참고: 2014년 3월 20일 기준, 인도는 19일 기준
 * 일본은 십억엔 기준이며
 자료: Bloomberg

그림 3. 아시아 주요국 연초 이후 증시 성과



참고: 3월 20일 기준
 자료: Bloomberg

국내 자금 동향

KOSPI가 1,950선을 하회하며 국내주식형 펀드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 국내 자금의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지수 박스권 등락에 따른 자금 유출입 흐름이 지속.

표 3. 주간 국내 자금 동향

(십억원)	주간 순유입				자산규모		
	주간	2주 전	3주 전	연초 이후	2013년말	현재	변화(%)
수익증권*	6,893	(913)	(5,598)	15,234	241,731	254,192	5.2
주식형(ETF제외)	318	(125)	(77)	775	85,378	83,323	(2.4)
국내투자	351	(124)	(28)	1,027	65,660	63,892	(2.7)
해외투자	(33)	(1)	(48)	(252)	19,718	19,430	(1.5)
혼합형	448	(802)	137	550	32,569	33,361	2.4
채권형	302	(193)	(2,560)	(2,074)	56,057	54,950	(2.0)
단기금융(MMF)	5,826	207	(3,099)	15,983	67,726	82,559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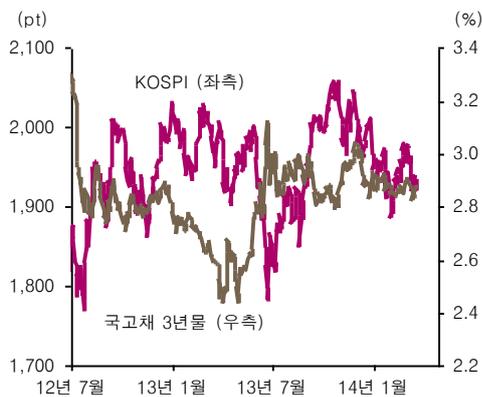
참고: * 증권과 단기금융의 합
 2014년 3월 19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국내 시장지표

(십억원)	지표	금주말(3/21)	전주말(3/14)	주간증감	2월말(2/28)
국내주식	종합주가지수	1,934.94	1,919.90	15(0.8%)	1,979.99
	거래량(백만주)	246	254	-8	253
	거래대금(십억원)	3,374	4,060	-686	4,878
	KOSDAQ지수	546.81	544.27	2.5(0.5%)	528.96
	거래량(백만주)	386	406	-20	318
	거래대금(십억원)	2,046	2,098	-51	1,723
채권	국고채(3년)	2.89	2.83	0.06	2.85
	회사채(3년 AA-)	3.31	3.26	0.06	3.28
	CD(91일)	2.65	2.65	0.00	2.65
외환	원/달러	1,080.30	1,072.80	7.50	1,067.50
	엔/달러	102.12	101.64	0.48	101.81
	원/100엔	1,055.20	1,055.52	-0.32	1,068.60
은행권*	요구불예금	93,476	92,777	699	96,673
	저축성예금	890,657	885,296	5,361	889,331
	금전신탁	133,762	133,198	564	133,940
증권**	고객예탁금	13,781	13,725	56	13,895
투신권**	주식형펀드	83,323	83,254	69	84,357
	혼합형펀드	33,361	33,286	74	33,651
	채권형펀드	54,950	54,780	170	57,733
	MMF	82,559	79,783	2,777	77,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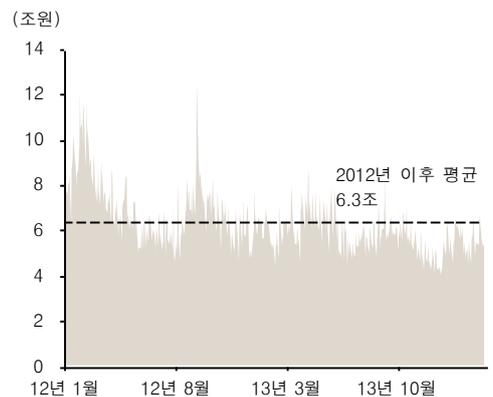
참고: * 3월 18일; ** 3월 19일 기준, 설정원본 기준

주가지수와 시중금리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시장 거래대금 동향



자료: 한국거래소

증시 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3/24 (중국) 3월 HSBC플래시 제조업PMI (3월 -/E 48.7/P 48.5) (한국) 2월 백화점 매출(전년대비) (2월 -/E -/P 18.6%) 2월 할인점 매출(전년대비) (2월 -/E -/P 6.8%) (유럽) 3월 PMI제조업 (3월 -/E 53.0/P 54.8)	25 (미국) 1월 주택가격지수(전월대비) (1월 -/E 0.7%/P 0.8%) 3월 소비자대지수 (3월 -/E 78.6/P 78.1) 2월 신규주택매매(천건) (2월 -/E 445/P 468)	26 (미국)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전주대비) (3월3주 -/E -/P -1.2%) 2월 내구재 주문(전월대비) (2월 -/E 1.0%/P -1.0%) (한국) 4분기 GDP(최종, 전년동기대비) (4분기 -/E -/P 3.9%)	27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3월3주 -/E 325/P 320) 4분기 GDP(연율, 전년동기대비) (4분기 -/E 2.7%/P 2.4%) 2월 미결주택매매(전월대비) (2월 -/E 0.0%/P 0.1%) (한국) 3월 소비자대지수 (3월 -/E -/P 108) (유럽) 2월 M3통화공급(전년대비) (2월 -/E 1.3%/P 1.2%)	28 (미국) 2월 개인소득(전월대비) (2월 -/E 0.3%/P 0.3%) 2월 개인소비지수(전월대비) (2월 -/E 0.3%/P 0.4%) (한국) 2월 산업생산(전월대비) (2월 -/E -/P 0.1%) 2월 광공업생산(전월대비) (2월 -/E -/P -3.8%)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제조업 (4월 -/E -/P 85) (유럽) 3월 경기대지수 (3월 -/E 101.2/P 101.2)
31 韓 2월 경상수지 2월 상품수지	4/1 美 3월 ISM제조업지수 2월 건설지출 韓 3월 소비자물가지수 3월 수출·수입 中 3월 제조업PMI 3월 HSBC 제조업PMI 日 소비세인상 시행	2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3월 ADP취업자변동 2월 제조업수주	3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월 무역수지 3월 ISM비제조업지수 유 2월 소매판매 4월 ECB통화정책회의	4 美 3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변동 3월 실업률 * 증시휴장 - 대만 등
7 * 증시휴장 - 중국 등	8 * 증시휴장 - 인도 등	9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2월 FOMC 의사록공개 韓 3월 실업률	10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월 월간 재정수지 韓 4월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4월 읍선만기일 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3월 통화공급 M2	11 美 4월 미시간대 기대지수 3월 생산자물가지수 中 3월 소비자물가지수 3월 생산자물가지수

자료: Bloomberg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이 페이지는 공백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백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백 페이지입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주식전략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14층 주식전략팀 / Tel: 02 2020 8000
-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